

한우 자조금

www.hanwooboard.or.kr

2013년 4월호

기획특집

FTA 시대 한우산업 발전대책

포커스

한우 마블링의 오해와 진실

릴레이인터뷰

정 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현장르포

2013 한우농가의 현주소

한우자조금 이렇게 쓰입니다





기획특집 03-05

FTA 시대 한우산업 발전대책

포커스 06-07

한우 마블링 오해와 진실-주선태 경상대 교수

릴레이인터뷰 08-09

정 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현장르포 10-11

전북 완주 오영택 농가를 가다

Information 12-17

한우자조금 이렇게 쓰입니다

KREI 축산관측 18-19

5월 축산관측

Bravo! Life 20-21

환절기 건강주의보 - 관절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2

제2의 인생-노년기 대비 재테크

애독자코너 & 전문점소개 23

FTA 수입확대로 축산업 수익성 취약해질 듯 피해보전직불금 발동기준·보전비율 현실화 시급 한·중FTA 피해최소화·축산농가 지원대책 강구해야

우리나라는 2002년 칠레와 첫 자유무역협정(FTA)협상을 타결한 후 10년간 47개국과 10개의 FTA를 체결했으며, 미국과는 2006년부터 협상을 착수해 2012년 3월 15일 FTA를 발효시켰다. 더 나아가 한·중 FTA도 협상중에 있다. 강대국과의 FTA를 통해 국내시장의 파급 영향과 앞으로의 전망을 진단해본다.

한·미 FTA 발효 후 1년, 무역은 흑자! 쇠고기 수입은 감소?

한·미 FTA 발효 1년이 지난 현재 세계적인 경제 불황에도 불구하고 FTA 혜택품목은 수출 증대효과를 톡톡히 봤다. 미국을 대상으로 자동차 부품은 10.9%, 석유제품은 29.3%가량 수출이 증가됐다. 농축산물의 경우 기상이변에 따른 곡물생산량 저하 및 국내 공급량 증가로 인해 수입량은 16.8%(59.4억달러)감소했다.

또한 돼지고기를 제외한 대부분 축산물의 관세가 장기간에 걸쳐 철폐되기 때문에 1년차 관세 감축률이 크지 않은 것이 원인 중 하나로 관세감축에 따른 수입 증대가 가시적으로 나타난 품목은 신선 과일 일부와 기타 가공식품 등으로 국한됐다.

한·미 FTA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 품목과 규모 확대 예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한·미 FTA 발효 1년 농업부문 영향 분석'을 주제로 한 연구 결과를



한·미FTA 발효 이후 축산물 감소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수입액			증감율		대(對)미 수입액 비중		증감사유
	3개년 평균	2011년	2012년	평년 대비	전년 대비	2011년	2012년	
쇠고기	456	623	526	15.2	-15.7	39.6	41.2	국내 공급증가와 미국의 2012년 초 북미지역의 BSE 발생
돼지고기	303	508	368	21.5	-27.7	34.6	34.6	국내 공급증가와 EU산과 경쟁 심화
닭고기	80	128	79	-1.4	-38.1	51.0	28.4	국내 공급증가와 수입선 다변화(브라질 등)

지난 3월 14일 발표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FTA 첫해에는 미국산 농축산물 생산 감소와 관세감축률이 낮아 수입량이 적었지만 2년차인 올해부터는 관세 감축률이 높아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피해보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모니터링 등 조사, 분석 기능이 강화돼야 하며 이에 따른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FTA피해보전직불금과 가축공제의 보장 범위를 확대해 피해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할 필

요가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피해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적인 축산물을 생산하는 등 시장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중 FTA 체결 시 장기적으로 한우산업 큰 피해 예상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한·중 FTA 체결 시 국내 GDP의 2% 이상 성장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농축산 분야는 큰 피해가 예상된다.

한우부문에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국내시장이 호주산과 미국산, 뉴질랜드산의 경쟁이 치열해 향후 수입이 허용되더라도 품질경쟁력이 낮은 중국산 생육이 수입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축산업 발전전략에 따라 동북 3성(길림성, 흑룡강성, 요녕성)을 중심으로 일본, 한국, 러시아 등 주변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축산업 발전계획이 추진중에 있어 장기적으로는 한우산업에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선 피해보전 직불금 발동기준은 평균가격의 90%에서 95%로, 보전비율은 90%에서 95%로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폐업보상금 지원기준 및 보전비율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향후 한·중 FTA 체결시 피해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



인터뷰

임용현 전국한우협회 전북도지회장

“정부 ‘카드돌려막기’ 수준 대책만 제시 ‘말뿐인 대책’ 으론 농가신뢰 회복할 수 없다”

“국가적 차원에서 FTA(자유무역협정) 추진 철회가 불가능하다면 진행에 있어 피해를 보는 입장에 대한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 정부는 지나치게 원론적인 접근만을 내세우며 기존 대책을 새로운 대책인 양 ‘카드돌려막기’ 수준의 대책만을 제시하고 있어 농가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임용현 전국한우협회 전북도지회장은 FTA 추진이 국가적으로 반드시 추진돼야 하는 사안임에는 공감하면서도 피해를 보는 농업이나 축산업에 대한 대책이 미비한 수준에 머무는 것은 납득키 어렵다고 이 같이 밝혔다.

까다로운 직불금 발동조건…농가 ‘그림의 떡’

올해 FTA 피해보전 직불금에 한우가 포함됐지만 지원기준은 피해영향 등을 이유로 낮은 수준으로 논의되며 이마저도 송아지생 산안정제와 중복된다는 이유로 송아지 지원이 없어질 위기라는 것이다. 게다가 피해보전 직불금도 발동요건이 까다로워 실제 농가 입장에서는 지원금을 받지 말라는 얘기과 다를 바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한·미 FTA에 관련 영향평가분석을 한 자료에는 피해가 크지 않다고 했지만 지난해 사료가격 상승으로 미국 내 거세우 시장상황이 어려워 수입 물량이 많지 않았던 점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미국시장 여건이 평년수준이었다면 수입 쇠고기에 따른 국내 피해가 컸을 것이란 설명이다. 이와 함께 FTA 관련 기금도 농가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은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사료원료 구매비 지원이 시행되고 있지만 농가에 혜택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에 조사료 문제가 남았으며 유통구조 개선도 시급한데 이러한 대책도 미진한 가운데 FTA만 추진해서는 농가의 공감대를 이끌 수 없다는 비판이다.



▲임용현 전국한우협회 전북도지회장

충분한 의견 수렴…농가위한 정책 개발을

임 회장은 “정부는 FTA를 추진하기에 앞서 농가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농가를 위한 정책을 개발해 농가의 불안을 해소시켜야 한다”며 “농가의 불안심리가 팽배해져 소값은 한·미 FTA가 체결되기 전부터 하락했지만 정부는 단순히 생산과잉에 따른 가격 하락이라고 못 박았다”고 꼬집었다.

생산과잉에 따른 가격하락 책임이 일부 농가에 있지만 FTA 추진 등에 따른 불안심리와 이에 따라 사회적 비용과 책임은 정부에게 있음을 잊어서 안된다는 것이다. 또한 ‘무역이득 공유제’ 등도 공염불에 그쳐서는 안 되며 ‘말뿐인 대책’ 으로는 농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우고기 예찬

주선태 교수(경상대 축산학과, 필명: 필로)

1. 육식의 반란?



※ 이 기고는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의 연구용역의 일환으로 제작한 '한우고기 예찬' 중 일부내용을 발췌한 것으로 연속 게재할 예정입니다. 또한 한우자조금은 향후 이번 연구내용을 책자로 발간해 소비자에게 왜곡된 한우의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마블링이 많다는 것은 결국 건강하지 못한 소라는 말! 이런 소고기를 비싼 가격에 사먹어야 하는 현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등급제란 말인가?”

지난 연말, 전주MBC에서 특별히 기획하여 제작한 <육식의 반란 - 마블링의 음모>라는 다큐멘터리를 보고 난 후, 일반 시청자들의 반응이다. 필로도 보는 내내 충격이 너무 컸던지 나도 모르게 주먹을 움켜 쥔 정도로 화가 치밀어 올랐다. 만약 이 방송이 대한민국 시청자들의 일반적인 상식을 깨고 공분을 불러일으킬 목적으로 특별히 제작된 것이라면, MBC가 제작한 이 특별다큐멘터리는 120% 그 목적을 달성했다고 여겨진다.

방송에 나오는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는가?

마지막 멘트가 “마블링은 지구촌의 막대한 곡물을 먹여치워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더욱 고단하게 한다. 마블링이 잔뜩 낀 고기를 먹은 부자들도 더 이상 행복하지만은 않다. 지구촌은 과연 이 소름끼치는 음모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오늘 당신의 선택에 우리 모두의 미래가 달려 있다.”로 끝나는 이 프로그램은 원래 그들이 기대했던 대로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각종 상을 수상했다. 전주MBC의

유룡 기자가 연출한 이 특집다큐멘터리는 2012년 12월 방송기자협회의 ‘방송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의 ‘이달의 기자상’을 수여하였다.

하지만 식육학자인 필로가 보기에 이 프로그램은 전문적 지식이 결여된 오해와 편견으로 가득 차 있으며, 좀 심하게 말하자면 어떻게 하면 시청자인 국민들을 자극시킬 수 있을까만을 고민한 대단한 작품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가장 먼저 타이틀부터 문제다. 마블링의 음모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 국어사전을 보면 음모는 “일을 비밀히 꾸밈, 또 그 계략” 또는 “범죄에 관한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국어사전의 의미대로라면 현재 마블링(근내지방)이 많은 소를 생산하여 맛있는 소고기를 소비자들에게 공급하려는 일체의 행위들이 비밀히 꾸며진 계략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곧 범죄에 관한 행위라는 뜻이다. 이전 말이 되지 않는다. 국내외적으로 지난 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소고기의 마블링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은 공공연하게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특허기술은 한 나라의 축산발전을 책임지는 핵심기술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이 방송은 단순히 미국 곡물(옥수수)업체의 음모에 의한 것으로 단정하고 있으며 국내 축산업

계나 학계 그리고 정부의 정책이 그러한 음모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호도한다.

처음부터 진실을 왜곡하면서 시작

육식의 반란, 마블링의 음모는 처음부터 진실을 왜곡하면서 시작한다. 1인당 연간 70kg의 쇠고기를 먹는 나라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건강을 지키는 이유는 무려 4시간씩이나 장작불에 구워 기름을 빼내는 전통을 고집하기 때문이고, 세계 제1의 쇠고기 수출국인 호주 사람들이 즐겨 먹는 고기는 다름 아닌 기름 한점없는 쇠고기 엉덩이살이라고 소개한다.

아르헨티나와 호주에서는 광활한 대지에서 생산되는 목초로 소를 사육하기 때문에 값싸고 맛있는 쇠고기가 대량 생산된다. 따라서 그들이 쇠고기를 맛있게 먹기 위해서는 잘 숙성시켜 바비큐를 하거나 양념을 한 스테이크로 먹는 방법 이외의 선택이 별로 없다. 더구나 이들 나라에서 아직도 변함없이 최고의 쇠고기로 꼽는 부위는 그나마 마블링 형성이 잘 되는 등심부위이며 가격도 가장 높다. 그들도 마블링이 많은 고기를 선호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마블링이 없는 쇠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보다 건강한 것도 아니다. 마블링이 많은 소고기를 선호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수명이 이 두 나라 국민들의 평균수명보다 길고, 사망원인과 질병의 발생율에도 많은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 국민이 그들보다 더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것은 각종 통계자료가 잘 보여주고 있다.

마블링은 근간지방·피하지방과 확연히 다르다

이처럼 이 방송은 시작부터 진실을 왜곡하면서 나름의 제작기획의도를 살벌한 언어로 설명한다. “한국은 어떤가? 살코기 사이로 기름이 허영게 퍼져 있는 꽃등심, 1⁺, 1⁺⁺라 불리는 마블링 많은 고기를 최고의 고기라고 한다. 마블링은 진정 2배, 3배 돈을 지불할 만큼 값어치 있는 것일까? 경제순리에도 맞지 않고 국민건강에도 독이 되는 마블링, 그 마블링

의 음모를 파헤쳐 본다.” 이는 정말 듣기만 해도 소름이 돋는 멘트 아닌가?

마블링은 근내지방으로 하나의 근육 안에 있는 지방을 말한다. 즉, 근육을 이루고 있는 근섬유들 사이에 침착하는 지방과 근육을 이루는 근섬유들 사이에 축적되는 지방을 말한다. 반면, 근육과 근육 사이의 지방은 근간지방 또는 슬기지방이라고 부른다. 또한 근육 외부를 감싸고 있는 지방은 피하지방이라고 한다. 따라서 마블링은 근간지방이나 피하지방과 확연히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방송에서는 두루뭉술하게 고기 속의 기름이라고 표현한다. 기자들이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닐 터인데 말이다.

지금보다 한우고기 최소 10배이상 먹어야

마블링, 즉 근내지방은 근간지방이나 피하지방과 그 지방산의 조성부터 차이가 있다. 따라서 지방의 특성과 맛도 다르다. 설령, 마블링이 방송에 표현된 대로 살코기 속의 기름이라고 표현된 지방의 총체라 할지라도, 이것의 섭취가 우리나라 국민들의 현대성인병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은 동물성 지방이 문제가 되는 미국이나 유럽 또는 아르헨티나와 호주처럼 식육으로부터 유래되는 동물성 지방의 섭취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한우고기를 1년에 4kg 정도밖에 먹지 않는 나라다. 따라서 만약 한우고기 속의 지방을 국민건강의 독이라고 표현하려면 우리나라는 지금보다 한우고기를 최소한 10배 이상을 먹어야 한다. 그 정도 먹는다면 한우고기의 마블링이 국민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한우고기를 적게 먹고 있는 상황에서 한우고기의 지방이 국민건강에 독이 된다는 말은 이만저만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오히려 한우고기는 건강을 위해 지금보다 최소한 2배 이상 먹어야 한다. 세계에서 가장 맛있고 안전한 소고기는 한우고기이기 때문이다.㉞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식품안전강국 구현위해 탄생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컨트롤타워’

무조건적 규제보다 산업진흥을 위한 ‘스마트규제’ 노력



▲정 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 격상된지 한달가량이 지났다.

식약처는 새정부의 공약 중 하나였던 불량식품 근절, 식품안전강국 구현을 위해 탄생했으며,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컨트롤타워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적 특수성을 지닌 축산물에 대한 업무가 식약처로 이관되면서 축산업계의 걱정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신임 식약처장으로 전직 농식품부 차관 출신의 정 승 씨가 임명돼 농축산식품업계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인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국민을 위한 식품안전’이라는 대명제하에 ‘스마트 규제’를 통해 산업진흥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신임 정 승 식약처장을 만났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맡던 농축산물식품관리 업무가 식약처로 이관되어 사실상 통합됐다. 어떤 의미가 있는가?

식약처의 출범은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반영된 것으로 먹거리의 안전관리를 일원화하고자 한데서 출발했다.

특히 농식품부와 식약처 등으로 분산돼 있던 농수축산물·가공식품의 관리를 식약처로 일원화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일부 생산단계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맡고 있지만 업무 누수가 없도록 해당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축산식품분야 각별한 관심...소통 · 협력통해 정책 수립

한우농가 앞장서서 안전한 축산물 공급 노력

거점 · 통합도축장 육성계획 성공 지원

농식품 분야에 정통한 신임 식약처장으로서 축산식품분야에 대한 남다른 정책 방향은?

우리 축산식품의 안전수준은 사육부터 도축 · 가공 · 유통까지 꼼꼼하게 안전관리를 해 온 덕분에 선진국에 근접했다. 앞으로 소비자의 확고한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생산부터 유통까지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 적용되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다.

신임 처장으로서 축산식품분야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련부처 · 생산자 · 소비자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겠다.

위생업무 강화와 관련, 도축장 위생관리를 위한 향후 방침은?

안전하고 품질좋은 고기를 생산, 공급하기 위해서는 도축장의 위생수준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마련한 '도축장 위생관리 강화대책'을 기본으로 식약처도 도축장을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가 경쟁력있는 도축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거점 · 통합도축장 육성계획이 성공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

한우 농가에게 당부할 말은?

한우농가가 애써 사육한 한우를 도축 · 가공단계에서 비위생적으로 처리한다면 소비자가 외면할 것이다.

특히 기립불능 소에 대한 불법도축이 연일 보도되어 한우고기에 대한 인식이 악화되지 않을까 크게 걱정하고 있다.

우리 한우농가들이 앞장서서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고자 노력한다면 결국 한우농가에게 이득으로 돌아올 것이다.

쇠고기의 위생 · 안전이 축산업 발전과 직결된다고 생각하는 바, 농가에서도 그 중요성을 이해하고 식약처의 안전정책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기를 바란다. ☺

30년 한우 키우면서 지금이 가장 힘들어 가격폭락 장기화...마을은 폐업으로 빈축사 준비

출하 거세우 85% 1등급이상 불구

소값은 여전히 생산비 이하 '부담 가중'

“사료비는 오르는데 출하도 늦어져 사육기간은 늘고, 제값도 못 받는 가운데 생산비 부담만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얼마안가 다 망한다’며 농가는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전북 완주군 화산면 우월리에서 한우를 키우는 오영택 농가. 한우를 키우며 지내온 30여년 동안 가격폭락, 구제역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 처럼 힘든 시기는 없었다며 이렇게 운을 뗐다.

소가 누워있는 형상이라 해서 ‘우월리’라 이름 붙여진 마을답게 마을 초입부터 축사가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지만 장기화되고 있는 가격폭락으로 최근에는 폐업으로 빈축사가 늘고 있다고 한다.

오 농가 역시 “하루에도 열두번씩 때려쳐야 하나 고민이 많다”며 “점점 농촌에 희망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자고나면 오르는 사료값

농장에 들어서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잔뜩 쌓여있는 분뇨였다. 예전같으면 쌓아두기가 무섭게 사라졌을 것이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가축분뇨법이 시행돼 처리가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농가에서는 퇴비가격도 제대로 못 받고 있으며 이마저도 제때 처리를 못해 쌓이기 일쑤다.

오 농가는 “많게는 200만원씩 받던 자원화 축분



전북 완주
오영택 농가

이나 퇴비를 30만원에라도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처리하면 다행이다”며 “많이 키우는 농가는 분노도 많이 나와 그냥이라도 가져만 가달라고 해야 하는 실정이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사료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어 농가는 막막할 따름”이라고 말을 이었다.

오 농가가 사용하는 모 사료의 업체는 이미 두달 전에 포대당 600원의 가격을 올렸음에도 최근 500원의 추가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더구나 전북의 경우 조사료 생산이 많은 지역이지만 사료 유통비지원을 받지 못해 역차별을 받고 있어 농가의 불만도 많다고 했다.

1등급이상 출하해도 적자

“이처럼 생산비 부담을 무릅쓰고 한우를 키워 내도 가격은 형편없습니다. 약품비에 노동비, 벼짚비

“

적자로 허덕이는 한우농가를 위해
정부의 소 값 회복 정책을 원했지만
지금은 규제나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비확대를 위한 묘책이 절실합니다.

”



폐업보상 지원금도 없고 규제만 더욱 강화

생산자·사료협회·정부 지혜모아 수급·가격안정대책 마련을

히 제자리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언제쯤 가격이
안정될지는 짐작조차 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덧
붙였다.

등을 제외하더라도

송아지 구입비 150만~180만원에 사
료비를 더하면 500만원 이상이 생산원가를 받아야
하는데 요즘같은 시기에는 420만원만 받아도 잘
받은 겁니다.”

오 농가에서 출하하는 거세우의 경우 85% 이상이
1등급이상의 등급판정을 받고 있지만 가격은 여전
히 생산비 아래라고 한다. 게다가 출하마저 제때 못
해 어쩔 수 없이 사육기간을 늘려야해 농가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렇다고 값싼 사료를 사용하게 되면 등급이 낮
아져 그나마 받던 수취가격도 못 받게 될까봐 사료
를 바꿀 수도 없다고하니 사료비 부담이 줄어들지
않고서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어려워 희망을 찾
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해보고자 오 농가는 비육우
를 200마리에서 180마리로, 암소를 30마리에서
20마리로 감축했다고 한다. 하지만 가격은 여전

소득안정 특단 ‘절실’

“한우 수급 주기가 무너졌습니다. ‘V’ 자곡선이
나 ‘U’ 자곡선처럼 한우가격이 떨어지면 언젠가는
올라야 하는데 지금은 ‘L’ 자 곡선을 그리며 오를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폐업보상지원
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규제만 더욱 강화되는 것
같아 한우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절
실합니다.”

오 농가는 한우농가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지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묘책이 나오지 않고 있어 생산
자, 사료협회, 정부 등 관계자들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수급 및 가격안정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생산농가와 소비자를 바로 연결하는
직거래나 직판사업을 통해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한우를 공급, 소비를 확대시키는 노력이 필요하
고 덧붙였다. 소비가 확대되지 않고서는 수급문제
의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것이다.㉞

봄나들이엔 우리 한우와 함께 하세요

한우자조금, 봄맞이 전국 한우 할인판매 실시



▲롯데마트에서 한우할인판매를 진행했다.

육 등 전부위를 정사가 대비 30% 이상 할인판매를 했으며, 부산물은 정사가 대비 50% 이상 할인판매를 진행했다.

또한 5월에는 가정의 달을 기념해 한우고기를 대대적으로 할인판매할 예정이다. 오는 2일부터 12일까지 11일간 농협, 한우협회 도지회,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홈쇼핑, 한우작목반, 한우영농조합법인, 소셜커머스(한우전문음식점), 한우유통업소 등 다양한 판매매체를 통해 한우할인판매를 진행한다. 구이, 정육 등 전부위는 정사가 대비 30% 이상, 부산물은 정사가 대비 50% 이상, 소셜커머스는 정사가 대비 30% 이상 할인판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강성기 한우자조금 관리위원장은 “장기간 폭락한 한우가격으로 인해 한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한우자조금을 통해 하루빨리 한우가격을 회복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우자조금은 지난 3월 21일부터 31일까지 11일간 위 업체 등을 대상으로 동일한 내용의 할인판매를 진행했으며 향후 지속적인 할인과 다양한 행사를 통해 한우가격 회복에 노력하고자 한다. ☎

따뜻한 봄을 맞아 가족, 친구들과의 봄나들이 일정이 많아지는 요즘, 상춘객을 타겟으로 폭락한 한우가격을 회복하고자 한우자조금과 한우협회가 한우할인판매를 진행했다.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국민과 함께하는 우리 한우!’를 주제로 대형유통매장은 물론 한우협회 도지회 및 시군지부, 작목반, 영농조합, 온라인쇼핑몰 등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구이, 정



▲이마트에서 한우할인판매 및 시식회를 개최했다.

2013 월별 소비촉진행사 연간 계획(안)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슈		호국의달	여름휴가		추석명절	캠핑&등산	한우의날	연말연시
프로그 램	할인 판매	전부위 할인판매	전부위 할인판매		선물세트판매 직거래장터	등심, 안심, 채끝 불고기 직거래장터	전부위 할인판매	부산물 할인
	이벤트	금요일은 한우 먹는날 대도시 홍보			기업체 연계 소비촉진	금요일은 한우먹 는날 대도시 홍 보		
타겟		전국민	전국민		전국민, 기업체	캠핑& 등산족	전국민	40대이상
홍보		TV자막 광고	TV자막광고, 온라인광고		TV자막광고, 신문광고, 온라 인광고	TV자막 광고	TV자막광고, 신문광고, 온라 인광고	TV자막 광고
중점 판매		다이어트 해당부위 소비촉진	휴가철 선호부위		선물세트 추석선물	캠핑 선호부위	부산물 사골 등 건강한 겨울나기	회식 선호부위

구제역 예방접종 4~7개월 간격으로 변경

예방약 구매내역 · 접종기록 미기재 '과태료' 부과



기존 5~6개월 간격으로 접종했던 구제역 예방접종 시기가 4~7월 간격으로 접종이 가능하도록 변경됐으며 송아지는 기존 2개월령 1차, 4주후 2차접종은 그대로 유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지난 11일 '구제역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확인서 휴대 명령'을 개정하여 고시했다.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한 농장주는 시·군 또는 쇠고기이력제 위탁기관인 지역축협 등에 통보해 개체별 예방접종 실시일자 등을 입력하도록 요청, 확인해야 한다. 구제역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도 가축방역기관이 지역 내 농장의 가축 및 도축장 출하 가축에 대해 혈청검사를 실시해 항체 양성축의 비율이 소의 경우 80% 미만일 경우 해당 농장에 대해 확인 검사를 하게 되며 확인 검사 결과 기준 미달 시 1~2개월 간격으로 추가 혈청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거나 예방접종 확인서를 휴대하지 않고 출하할 경우와 예방약 구매내역 및 접종기록 증거가 없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

자조금 사업별 대행사 선정 완료

한우홍보대사에 가수겸 탤런트 이승기 씨 선정

한우자조금은 지난 3월 20일 TV광고대행사 선정을 마지막으로 각 사업별 대행사 선정을 마쳤다. 특히 TV광고 대행사로 선정된 코마코는 최근 TV광고 시장에서 최고 주가를 올리고 있는 국민남동생 이승기 씨를 홍보대사로 내세웠다.

이승기 씨는 모범적인 생활로 인해 각종 TV광고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으며 그가 출현한 광고 제품들의 경우 매출신장에 큰 도움을 주고 있어 높은 점수를 얻었다.

이어 TV협찬사업 대행사로 미디어MBA가 온라인정보제공 사업 대행사로 애드미션, 언론사 등 PR대행사로 비알컴, 이벤트 대행사로 상상프로모션이 각각 선정됐다.

한우자조금은 “사업승인이 늦어졌지만 각 사업별 대행사 선정이 완료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소비홍보 사업을 벌일 수 있게 됐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산업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홍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름다운 제주에서 맛있는 한우 드세요

제주 왕벚꽃 축제장서 한우 직거래장터 개최



한우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와 한우자조금은 아름다운 제주에 만개한 벚꽃도 즐기고, 제주도 최고 품질의 한우도 맛볼 수 있는 ‘제주 왕벚꽃축제 제주한우 직거래장터’를 지난 3월 28일부터 31일까지 개최했다.

한우자조금이 주최하고, 전국한우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가 주관하는 ‘제주한우 직거래장터’를 통해 한우 소비촉진 및 제주도 한우브랜드인 ‘보들

결 제주한우’를 홍보했다.

이에 제주종합경기장 한라체육관 동측주차장에 서 고품질 암소한우를 시중가보다 20~50% 저렴한 가격에 판매했다.

또한 행사장을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우 시식회와 함께 한우 OX퀴즈도 진행해 한우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리며 한우구매고객을 대상으로 경품 추첨 등을 진행했다.



한우와 함께 하는 봄축제 대향연

논산 딸기축제, 영암 왕인문화제 한우고기 원가 판매

한우자조금과 전국한우협회 논산시지부는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논산딸기축제 행사장에서 한우고기 할인행사를 진행했다.

논산시지부는 매년 상춘객의 호응을 받고

있는 논산의 대표축제인 딸기축제 행사에 한우고기 할인판매를 진행하고, 한우고기 먹거리장터, 한우불고기 시식회 등을 마련해 소비자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논산시지부는 논산축협과 공동으로 한우고기 할인판매를 기획해 거세우 및 암소한우의 등심 및 전부



▲논산 딸기축제(4월 3일~7일)



▲영암 왕인문화제(4월 5일~6일)

위를 원가에 판매했다.

또한 한우자조금과 전국한우협회 영암군지부도 영암축협과 손잡고 한우 원가 판매 및 홍보시식회를 진행했다.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2일간 영암군 왕인박사유적지 일원에서 지역 소비를 활성화 시키고자 한우고기를 파격 할인된 원가에 판매했다.

한우라서 재미백배

프로야구 개막, 다양한 이벤트 펼쳐



한우자조금은 프로야구 개막을 맞아 경기 중계시 한우육포를 즐겨먹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한우라서 재미백배'라는 온라인 이벤트를 4월 28일까지 펼쳤다.

한우소비의 다양한 방법을 소비자에게 유도하고자 펼친 이번 이벤트의 당첨자를 대상으로 한우육포 및 한우버거 등을 경품으로 배포했다.

또한 오는 6월 30일까지 잠실야구장 내 한우자조금존을 별도로 신설하여 옥외광고를 운영하며 구장을 찾은 야구팬을 대상으로 한우소비촉진을 위한 홍보를 진행한다.

역시 믿음직한 우리한우!

귀농귀촌 페스티벌, 한우 시식회 열어



한우자조금과 한우협회는 지난 18일 서울 aT센터에서 열린 귀농귀촌 페스티벌에 참여해 한우시식회를 진행했다.

안전한 한우를 홍보하고자 역점을 둔 이번 행사에서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우불고기 시식회와 함께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며 한우의 안정성을 홍보했다.

나른한 봄날, 한우로 원기회복

한우자조금, 청계광장에 직거래 장터



한우자조금은 소비자와의 직거래를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한우를 판매하고자 지난 18일부터 19일 이틀간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한우직거래장터를 운영했다. 한우 전부위를 30% 이상 할인판매한 이번 직거래장터는 불고기 시식회 등의 이벤트를 진행하며 소비자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한우자조금은 소값회복에 앞장 서고자 지속적인 직거래장터 운영 및 할인판매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이와 함께 즐거운 한우요리 만들기

어린이날 맞이 쿠킹클래스 개최



한우자조금은 어린이날을 맞아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한우자조금

은 지난 4월 26일, 엄마와 아이가 함께 하는 무료 한우 쿠킹클래스를 개최했다. 이번 한우 쿠킹클래스는 특별한 어린이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가족나들이 때 싸가기 좋은 봄나물 한우샌드위치와 영양만점 한우불고기&떡 샐러드 요리법을 엄마와 아이가 짝을 이루어 함께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한우자조금 서정훈 팀장은 “엄마와 아이가 한 팀이 돼 직접 한우를 이용한 요리를 만들어서 가정의 달 특별한 추억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2013 한우, 더 가까이
한우문화공모전
6th

2013. 04. 15(Mon) ~ 05. 31(Fri)

| 주제 | “한우, 더 가까이”

한우의 다양한 우수성을 바탕으로, 한우와 소비자가 가까워지는 소비문화를 전달함으로써 한우의 소비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인 콘텐츠

| 참가대상 | 대한민국 국민(개인 및 4인 이하 그룹)

| 공모내용 |

- 광고디자인 : 한우에 대한 정보를 창의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로 표현하여 국내외에 한우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광고 디자인을 제작하여 응모
- 한우송 : 노래, 춤, 퍼포먼스 등을 통해 한우의 우수성을 참신하고 쉽게 알릴 수 있는 내용의 한우송을 창작하여 응모
- 사진 : 한우를 통해 우리네 삶 속의 기쁨과 노여움, 슬픔과 즐거움 등을 표현한 사진을 촬영하여 응모

| 공모일정 |

- 참가 신청 및 접수 마감 : 2013년 4월 15일(월)~5월 31일(금)
- 시상 : 2013년 6월 27일(목)
- 상기 일정은 주최측의 사정으로 인해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차 심사 : 2013년 6월 7일(금)
- 최종 심사 : 2013년 6월 21일(금)

| 접수방법 |

제6회 한우문화공모전홈페이지(<http://contest.hanwoo114.co.kr/>)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받아 한우문화공모전 E-mail로 접수

| E-mail | hanwoo_contest@daum.net | 연락처 | 한우문화공모전 운영 사무국 02)326-0505

| 시상내용 |

※제세공과금은 수상자 본인 부담입니다.

구분	한우송	광고 디자인	사진	비고
금상	200만원	200만원	100만원	각 부문 1팀
은상	100만원	100만원	50만원	각 부문 1팀
동상	50만원	50만원	30만원	각 부문 1팀
입선	한우선물세트	한우선물세트	한우선물세트	각 부문 5팀
가작	상장 수여	상장 수여	상장 수여	각 부문 10팀

| 기타 | 접수된 작품은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고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가 축산농가의 사육과 출하 의향 등 각종 통계자료를 수집·분석한 후, 농업과 관련업계 전문가들에 자문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전망 결과는 앞으로 기상과 수급여건의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 www.krei.re.kr를 통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5월 한우 수급동향과 전망



3월 사육마리수 작년 12월보다 감소,
6월 한·육우 사육마리수 작년보다 다소 감소 전망

정부의 암소감축 정책 추진과 설 명절 수요에 따른 도축마리수가 증가하여 2013년 3월 한·육우 사육마리수는 2012년 12월 305만9000마리보다 3% 감소한 296만6000마리로 조사되었다(통계청). 한우 사육농가수는 13만7000호로 전년 15만4000호보다 1만7000호(11%) 감소하였다. 암소 감축과 전년보다 낮은 송아지 생산 잠재력 영향으로 6월 한·육우 사육마리수는 전년 동월 311만마리보다 다소 감소한 308~310만마리로 전망된다.



1분기 한우 등급판정마리수 15.4% 증가,
5월 도축 전년보다 증가, 수입 감소

설 명절과 암소감축으로 1~3월 등급판정마리수는 전년 동기간보다 15.4% 증가한 24만3000마리였다. 이중 암소 도축마리수는 전년대비 42.7% 증가한 13만마리, 거세우는 전년보다 4.8% 증가한 10만마리였다. 미국산 쇠고기의 관세인하 효과로 2012년에 수입된 물량이 이월되어 1월 쇠고기 수입량은 전년보다 35.8% 증가한 2만8000톤이었다. 그러나 2월에는 7% 감소한 1만8000톤이었으며, 칠레산 쇠고기가 수입되기 시작하였으며, 3월(상순~중순) 수입량은 1만4000톤이었다(검역기준).

암소 감축과 거세우 출하 증가로 5월 등급판정마리수는 전년(6만1000마리)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육 재고가 2월말 현재 4만3000톤으로 여전히 많아 5월 쇠고기 수입량은 전년(2만1000톤)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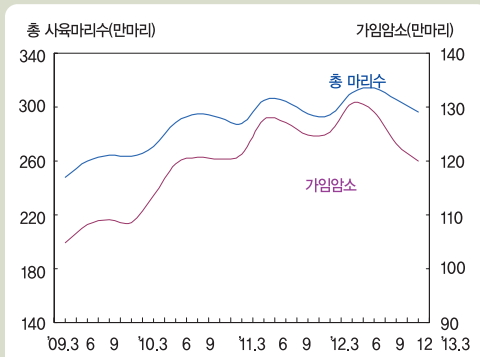
암소 감축과 거세우 출하 증가로 5월 도매시장 가격 약세 지속 전망

송아지 입식의향이 높아지면서 우시장에서의 송아지 가격이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번식의향보다는 비육의향이 상대적으로 높아 암송아지와 수송아지 가격차가 여전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 4월 12일 현재 우시장 암송아지 전국 평균가격(6~7개월령 기준)은 108만원, 수송아지 가격은 183만 원에서 형성되었다.

비수기인 4월(1~14일) 한우 1등급 도매가격은 12,151원(지육kg)으로 전년 동월 1만4,488원, 평년 1만4,499원보다는 16% 낮은 수준이다. 거세우 출하와 암소감축 증가로 5월 한우 1등급 도매가격은 4월과 비슷한 1만2,000원대로 예상되며, 이는 전년 동월 1만4,050원, 평년 1만4,277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소비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1만1,000원대까지 하락할 수 있다. 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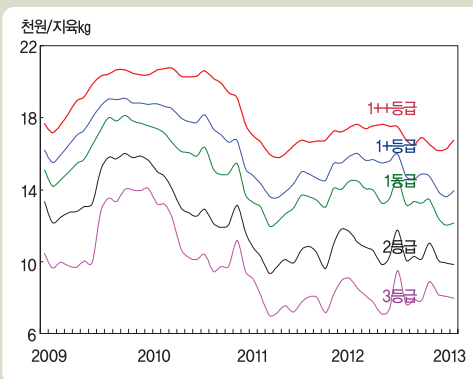


◆ 한·육우 사육과 가임암소 마리수 동향



자료 : 통계청

◆ 등급별 도매시장 가격 동향



자료 : 축산물품질평가원

붓거나 열감 동반 **관절통증**

관절이란 뼈와 뼈가 만나는 부위이다. 관절은 뼈와 뼈 사이가 부드럽게 운동할 수 있도록 연골, 관절낭, 활막, 인대, 힘줄, 근육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움직임에 따라 발생하는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 관절염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관절에 염증이 생긴 것으로, 이로 인해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은 관절의 통증이다. 그러나 관절에 통증이 있다고 해서 모두 관절염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붓거나 열감이 동반되어야 관절염이라고 할 수 있다. 관절염이 있을 경우 의사들은 이것이 급성인지 만성인지, 관절 자체의 문제인지 관절 주위의 문제인지, 기계적 문제인지 염증으로 인한 문제인지, 중추 관절인지 말단 관절인지 등을 파악하여 관절염의 원인을 알아내고 정확한 진단을 내리게 된다.

[출처 : 서울대병원]



골관절염과 영양

**바른 자세 · 꾸준한 운동
균형잡힌 식사관리가 중요**



골관절염 환자들은 바른 자세, 꾸준한 운동과 함께 균형 잡힌 식사 관리가 중요하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 무기질, 섬유질 등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는 균형잡힌 식사는 적절한 체중유지, 신진대사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관절염 완화를 돕는다.

고관절이나 무릎관절처럼 직접적으로 하중을 받는 관절은 비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계획성 있는 식사조절을 통해 정상체중을 유지하도록 한다.

관절염 치료에 특별히 효과적인 음식은 없다.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여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음식은 있으나, 관절염을 낮게 하는데 효과적인 음식은 없다. 무엇을 먹는지 보다는 어떤 음식을 얼마만큼, 어떻게 먹는지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

골다공증은 관절염 환자에게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다. 통증으로 인한 운동량 감소, 과도한 스테로이드의 사용으로 인한 골 손실 등의 이유로 골다공증의 위험이 있다. 평소 식생활에서 적절한 칼슘의 섭취를 통해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다.

비타민 D는 장에서 칼슘이 흡수되는 것을 도와주며, 신장에서의 배출을 감소시켜 신체 내의 칼슘을 보존하는 작용을 하므로 추가적인 섭취가 도움이 되겠다. ☺

관절 건강 · 통증 완화에 도움을 주는 식품

항산화 영양소

- 항산화 작용을 하는 비타민과 무기질이 골관절염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 비타민 E, A, C, D 급원식품 : 간, 우유, 브로콜리, 해바라기씨, 달걀, 녹황색채소, 연어 등
- 셀레늄 급원식품 : 정제되지 않는 곡류, 콩류, 밀배아, 조개류, 참치, 청어 등
- 무기질(Ca, Fe, Zn) 급원식품 : 한우

불포화 지방산

- 불포화지방산은 관절염의 염증반응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며, 생선(고등어, 참치, 연어, 다랑어)에 많이 들어간 오메가-3 지방산(ω -3)가 더 효과적이다.

필수아미노산

- 성장기 어린이나 임산부, 특히 노인들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은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며, 쇠고기 특히 한우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

식생활 실천사항

- ① 하루 세 끼의 규칙적인 식사를 한다.
- ② 음식을 천천히 먹는다. 적은 양을 먹더라도 천천히 먹으면 포만감을 느낄 수 있어 체중조절에 효과적이다.
- ③ 단백질은 끼니마다, 지방은 적게 섭취한다.
- ④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충분히 먹는다.
 - 건강한 성인은 하루 700mg, 골다공증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하루 1,000mg 정도의 칼슘을 섭취하여야 한다.
 - 일반 우유 1/2컵, 떠먹는 요거트 1개, 칼슘강화 두유 1/2컵, 방어포 2/3장, 잔멸치 1큰술, 두부 1/6모, 순두부 1컵에는 약 100mg의 칼슘이 들어있다.
- ⑤ 술과 담배는 자제한다.
- ⑥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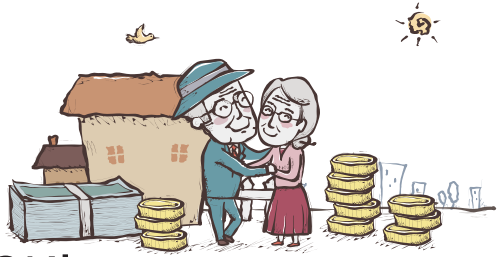
〈 자료제공 :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 〉

관절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A

Q 관절염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던데 류마티스 관절염과 퇴행성 관절염은 어떻게 다른가요?

A 퇴행성 관절염은 주로 50대 이후에 발생하고 여자에게 더 많으며 체중증가, 외상, 고령 등이 위험인자가 됩니다. 이는 진행이 느리고 면역학적 검사에 이상이 없으며, 염증수치(ESR, CRP)도 높지 않습니다. 반면, 류마티스 관절염은 30~40대의 여성에서 호발하고, 원인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면역기능에 이상(약 80%에서 류마티스 인자 양성)을 보입니다. 주로 손 관절의 증상이 동반되면서 아침에 손이 잘 구부러지지 않는 증상(1시간 이상의 조조경직)을 호소하게 되고, 염증수치도 높게 나타납니다. 류마티스를 전공한 의사들은 쉽게 구분할 수 있으나 드물게 염증성 골관절염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잘 구별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서울대병원 류마티스내과 〉



제2의 인생-노후준비 재테크

업그레이드된 新연금저축계좌로 OK!

최근 많은 사람들이 新연금저축에 대해 문의한다. 新연금저축은 5년만 가입해도 55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연금 수령기간도 최소 15년으로 길어졌다. 은퇴 전에 짧게 납입해도 안정된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이다. 2013년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기존 연금저축이 '연금저축계좌'로 업그레이드 되었다. 세부업무절차는 금융감독원 등 금융권 공동TFT에서 협의 중으로 4월 중 출시가 예상된다.

[출처 : 이코노믹 리뷰 - 김종석 우리투자증권 전주지점장]

新연금저축, 가입기간 줄고 세제혜택 많아져

기존의 연금저축은 10년이라는 긴 유지기간이 지나야 연금수령이 가능했지만, 新연금저축은 가입기간이 5년으로 확 줄었다. 40대 중반 혹은 50대 초반에 가입해도, 5년 납입 후 소득이 끊기는 5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연금수령 기간도 기존에는 5년 이상 수령할 수 있었지만, 최소 15년 이상 수령할 수 있게 바뀌었다.

납입한도 또한 연간 12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늘어 노후를 위한 저축액을 늘릴 수 있게 되었다. 분리과세한도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합산하여 연 600만원이었지만, 新연금저축은 공적연금을 제외한 사적연금만 연 1200만원으로 늘어나면서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

연금수령시기 늦추면 추가 세제혜택도 가능

新연금저축은 가입연령의 제한이 없고 연금수령시기를 조절함으로써 낮은 연금소득세를 부담하면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기존의 연금소득세는 5.5%(지방세 포함)가 부과된 반면, 新연금저축은 55~70세는 5.5%, 71~84세는 4.4% 그리고 81세 이상의 경우 3.3%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된다.

소득이 줄어들 것을 감안해 나이별로 최소 3.3%까지 차등적용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55세에 연금수령 시에는 5.5%의 연금소득세가 과세되지만, 81

세부터 수령하면 3.3%의 낮은 연금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다시 말해, 다른 소득이 있다면 연금수령을 일시 중지하고 81세부터 받아도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新연금저축 역시 연년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원금보장 VS 수익성...

투자성향에 맞는 금융기관 선택 필요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투자성향과 재무 목표에 맞춰 상품을 선택해야만 한다. 안정성을 제일로 여긴다면 원금이 보장되는 은행의 연금저축신탁이나 보험의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하는 편이 낫다. 연금저축보험은 가입 초기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많아 가입 초기에 해지할 경우, 원금 손실을 볼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만 한다.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어느 정도 투자위험을 감수하면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에게 적합하다. 펀드의 특성 그대로 수익률은 높을 수 있으나,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 특히 펀드에 가입할 땐, 시장변동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변경할 수 있는 다양한 펀드가 준비되어 있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금신탁과 연금보험, 연금펀드의 수익률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확인할 가능하다. ☺



애독자코너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1일 '구제역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확인서 휴대명령'을 개정하여 고시했습니다. 이 법안이 고시됨에 따라 구제역 예방접종 시기가 변경되었고, 과태료 부과사항도 추가됐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시기의 경우 송아지는 기존대로 유지되고, 일반 소의 경우 기존 5~6개월 간격으로 접종했었지만 **이제 0~0개월 간격으로 변경됐습니다.** 또한 예방약 구매내역 및 접종기록 미기재 시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농가여러분은 반드시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접종시기는 어떻게 될까요? 한우자조금 소식지 4월호 1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전화번호도 같이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게재하시는 분 중 추첨을 통해 5만원 상당의 송아지 설사 예방약을 드립니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홈페이지
www.hanwooboard.or.kr

전국한우협회 홈페이지
www.ihanwoo.org

3월호 정답자분들
축하드립니다!

유세진(울산 울주군), 김연삼(충남 예산군), 이진태(경북 영주시),
남기정(충북 충주시), 김남영(전남 무안군), 김종순(전북 고창군)

한우맛집소개



제주축협한우프라자

전화 : 064)726-5671~2

주소 : 제주 제주시 아라 2동 2423

'보들걸 제주한우'를 맛보기 위한 최적의 장소 제주의 고유 한우브랜드인 '보들걸 제주한우'만을 취급하고 있는 이곳은 제주축협에서 직영하고 있어 믿음을 더해 준다. 쇠고기이력제로 생산과정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도 있으며 1+등급의 철저한 등급관리가 되고 있다. 국내산 식재료만 사용하고 위생 관리 또한 철저해 제주특별자치도 선정 우수관광사업체로 선정되었다. 타 업체와 차별화된 서비스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제주한우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는데 회의실을 별도로 갖추고 있어 무료로 활용 가능하다. 최고 품질의 참숯으로 고기를 구워 더욱 맛있는 '보들걸 제주한우'를 즐길 수 있다.

누가 키웠는지?

이름이 무엇인지?

어디서 태어났는지?



한우인지를 확인하세요

한우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우리 고유 품종입니다.
한우는 다양한 영양소를 포함한 최고의 보양식입니다.
한우는 어제 도축한 한우를 오늘 식탁에서 만날 수 있는
아주 신선한 식품입니다.
쇠고기 이력제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그 어떤 고기보다 믿고 드실 수 있습니다.
16개의 엄정한 등급체계, 개체식별번호, 생산자실명제 등
한우는 간간하게 관리되고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오직 한우에만 있습니다.

